

뱀사골부터 교룡산성까지 '오색빛깔 알록달록'

지난 10월 8일 한로가 지나자 천지산하(天地山河) 사방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을 정취가 가득히 물어나고 있다. 올해는 태풍이 유난히 잦으며 천지산하(天地山河) 곳곳을 강타했지만, 하 시절은 어김없이 흘러가며 계절은 가을을 소리소문 없이 우리 곁으로 데려왔다. 스치는 바람결에 가을색이 깊어만 가는 지금 이 시기, 잠시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산하에 내려앉은 가을 색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 한다. 번뇌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올해는 볼타는 듯이 강렬한 빛깔을 자랑하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부터, 도심 속 단풍명소 만인의총, 교룡산성 아기단풍과 오감만족 숲까지 남원의 다채로운 단풍명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어떨까? 깊어가는 가을, 자연이 허락한 만큼 '오색빛깔 알록달록' 과감히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난 남원의 단풍으로 작은 행복을 누려보자.

▲지리산 뱀사골 단풍은 축제로 시작

민족의 영산이 자리하고 있는 남원의 단풍은 어떤 빛깔일까? 울긋불긋 가을 손님이 남원 지리산 노고단을 기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에 남원시 산내면에서는 지리산 뱀사골의 단풍 향연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19일 제42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를 개최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단풍객들에게 여유를 준비해 선사한다.

트기 트레킹 코스로 안성맞춤인 이곳의 단풍은 주능선인 노고단과 천왕봉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점차 내려오고 있다.

지리산 단풍은 14일 노고단 상부에서 이제 막 시작, 오는 26일 전후로 절정을 이루고 11월 상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리산 단풍은 언제나 화려한 빛깔만큼 맑고 예쁘다.

특히 지리산에는 피아골 등 단풍 명소가 즐비하다. 그중 단연 으뜸은 뱀사골로 이곳은 우리나라 고갯길 중 가장 높은 1130m에 위치하고 있으며, 14km 길이의 계곡 곳곳에 탁용소, 병소, 뱀소 등 빼어난 비경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소(沼)와 어울려 지리산 최고의 단풍으로 평가받고 있다.

뱀사골 단풍은 보통 피아골 단풍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내려오고, 숲을 온통 불 지르는 듯한 강렬한 색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뱀사골 입구 반선에서 요룡대, 탁용소, 병풍소를 지나 간장소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붉은색 못지않은 노란색도 많아 전형적인 삼색단풍 풍광의 백미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풍구경은 보통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탐방 안내소를 방문해 지리산 탐방코스, 주요 사찰, 주요 봉우리, 지리산의 옛 모습, 지리산에 살고 있는 64마리의 반달기슴곰 등 지리산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 단풍 구경에 임하면 더욱 좋다. 특히, 지리산 뱀사골 단풍이 각광받는 것은 코스가 완만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요룡대까지는 자연탐방로로 돼있어 어린이나 노인들도 쉽게 걸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간장소까지 다녀오는 코스가 적당하다.

왕복 시간은 요룡대(2.2km)까지는 넉넉잡아 2시간, 간장소(6.5km)까지는 3~4시간이면 족하다. 뱀사골은 다양한 산행코스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반선~ 화개재~삼도봉~노고단~성삼재까지 8시간이면 오를 수 있고, 화엄사까지는 1박2일을 생각해 야한다.

특히 뱀사골~삼도봉~임결령 산거리~피아골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8시간 산행코스는 지리산 단풍의 대명사로 꼽히는 피아골과 뱀사골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다.

▲지리산 단풍이 물든 드라이브 코스

단풍을 꼭 트레킹만으로 즐길 필요는 없다. 산행을 즐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장대한 지리산의 비경과 단풍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한다. 드라이브 길은 크게 두 가지 코스로 좁혀진다. 뱀사골에서 861번 지방도를 타고 도계 3거리~노고단 성삼재를 거쳐 구례 전은사에 이르는 25km의 코스와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가 있는 남원 육모정에서 60번 지방도를 타고 정령치를 지나 도계 3거리~뱀사골에 이르는 23km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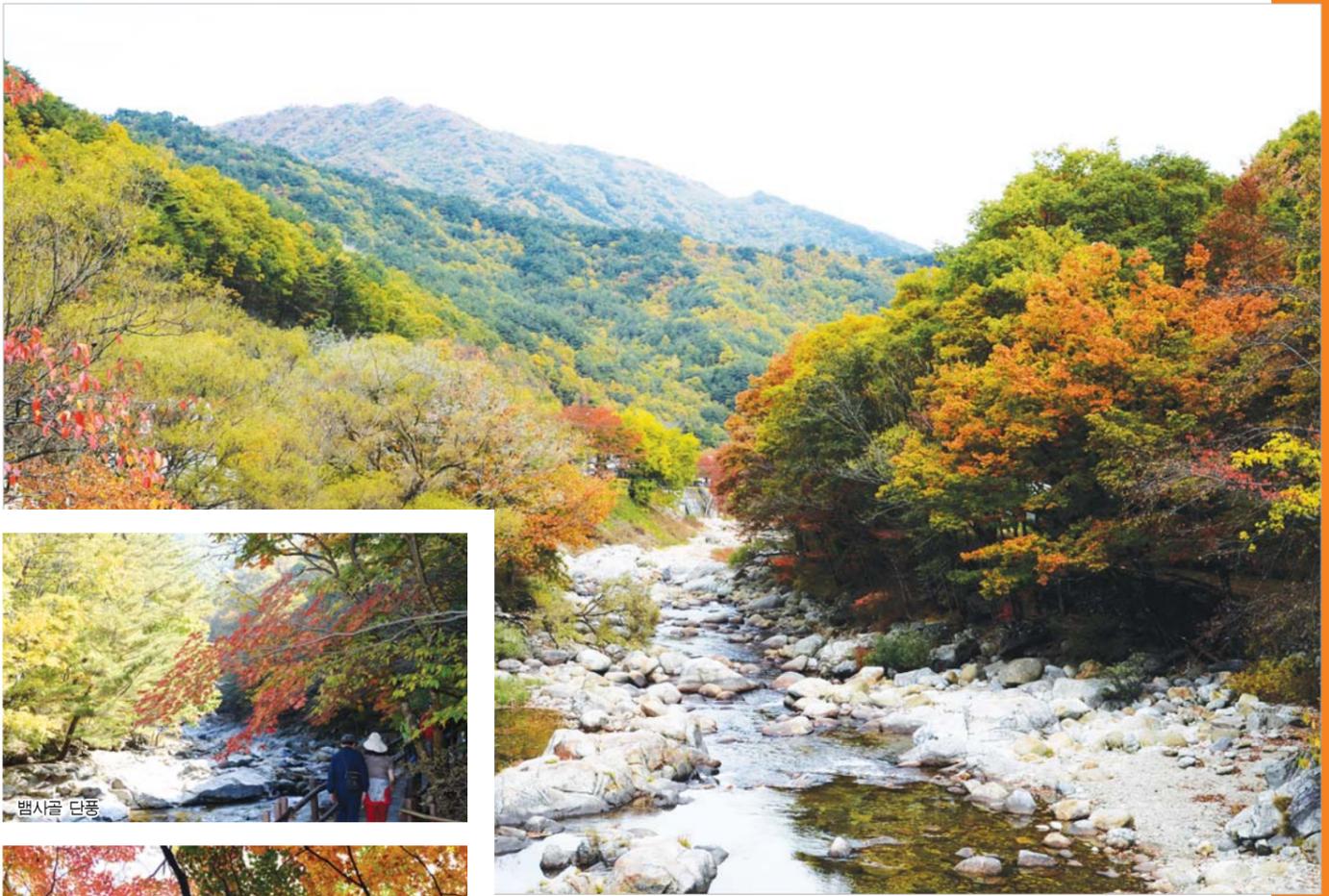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지리산 산세와 단풍 절경은 마치 신선이라도 된 듯 마냥 흡족함을 주고 있지만 성수기의 밀려드는 드라이브족에 대한 자구책은 각자가 준비해야 할 몫이다.

▲선열의 흔이 담겨있는 만인의총 단풍

전국 최고인 지리산 뱀사골 단풍과 또 하나의 남원 단풍 명소로 도심 속의 단풍 명소인 만인의총이 있다.

만인의총은 남원을 지키기 위해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1만여명의 의로운 충혼을 모신 곳으로 남원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그 뜨거운 역사현장에 우뚝서있는 단풍 나무는 매년 고풍스러운 담장을 중심으로 흐트러지게 자리하고 있다. 붉고 노란 단풍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단아하면서 고운 자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근라지는 아니지만, 만인의총과 절묘한



뱀사골 단풍



만인의총 단풍나무



교룡산성 단풍길

뱀사골 단풍, 강렬한 색감으로 '현혹' 만인의총·교룡산성 단풍도 때깔 고와

조화를 이룬 덕에 선혈의 충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풍의 모습으로 매년 곁히 남원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교룡산성 들레길 단풍근라지

1973년 6월 전라북도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남원의 교룡산성(蛟龍山城)은 풍화과 3.1 독립만세운동의 발원지로서의 지위가 서려 있는 송고한 역사적 현상이다.

산성에는 교룡산을 살펴볼 수 있는 12.6km의 들레길이 조성돼있으며 당일 코스로 총 4시간 가량 소요된다. 특히, 남원시민들이 지리산을 찾을 시간이 부족할 때 이곳을 즐겨 찾는 곳으로, 방대한 단풍의 명소를 찾기보다 고즈넉하고 소소한 아기단풍 근라지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교룡산성의 단풍은 들레길 나오는 길 어귀에 있는 산성교를 중심으로 산성공원에 이르기까지 단풍나무 10여 그루 정도로 형성된 근라지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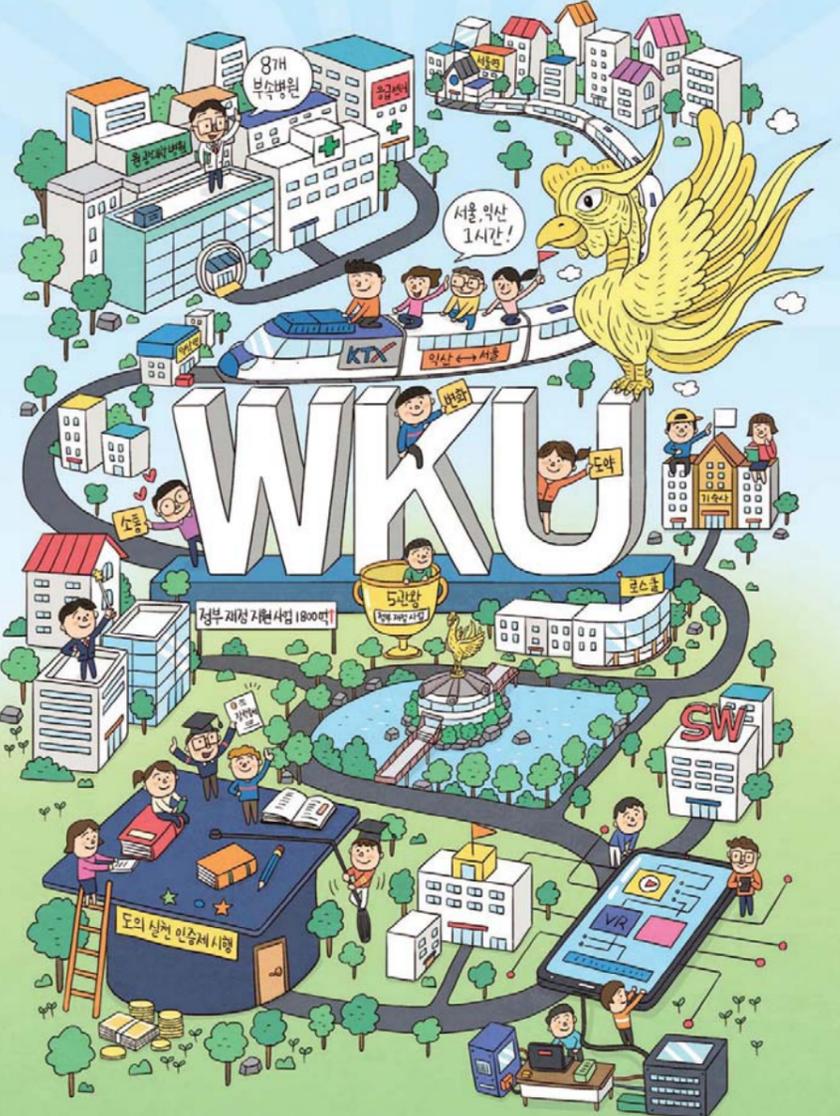
이곳의 단풍은 귀엽고 아담한 사이즈를 지닌 아기단풍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특징으로, 매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숨겨진 데이트 코스이자 들레길 방문객들의 방문이 잦은 단풍코스도 각광 받고 있다. 이밖에 남원시민들은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시내 단풍거리를 거니는 걷는 솔솔한 재미를 추가하고 있다.

'사드라 사드라' 관광단지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남원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도시숲 '오감 만족 숲'의 단풍을 둘러보는 것도 가을정취를 색다르게 즐기기에 충분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사람 중심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 원광대학교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을 위한 소통! 변화! 도약!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